KÓKKOS 8

2022 AUG
VOL. 245

개교70주년 70 SINCE 1952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KBU 채플 찬양팀이 포천밀알훈련센터로 MT를 다녀왔다. 무더운 날이지만 수영장 물속에서 선후배들이 몸과 몸을 격하게 부딪치며 상쾌함을 만끽한다. 서로에게 주님을 향한 찬양의 푸르름이 오래 오래 지속되기를... [관련기사 7면]

일립 강태국 박사 제 24 주기 추모예배

'고난을 이겨낸 설립자는 용기와 자신감을…'

일립 강태국 박사 제 24 주기 추모예배가 25 일 오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 사회로 김희태 목사(동광교회 원로목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소금에게 짠맛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는 성서인에게 존재와 자긍심을 보여준 스승이었다. 그분은 교계에서 대단한 고집쟁이였다.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념과 믿음에 관하여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반면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며 지도해주신 참 어른이셨다. 우리 모두 스승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하였다.

이에 앞서 박태수 대학원 교학처장은 "설립자가 보여준 밀알정신의 믿음과 위대한 실천이 이 땅위에 다시 이어지길" 기도하였다.

반종원 이사장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성서의 뜻을 실현해 가는 모든 성서인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축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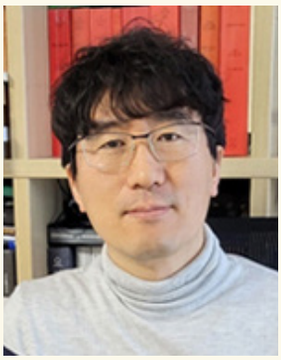
강우정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친께서는 복음이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일생을 다 바쳤다. 고생과 수고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이 위기에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과 이를 헤쳐 나온 설립자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시대가 어둡고 사탄이 우리를 꺼꾸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희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매니설교

반석이신 하나님 (마태복음 7 장 24–27 절)

안창선(성서학과 교수)



팔레스타인 지역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천사가 옮기던 바위 주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찢어져 흩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바위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온통 돌 천지입니다.

특이한 건 건물 짓는데 돌을 사용하거나 건물 자체를 반석 위에 짓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교회나 베드로 수위권 교회 등을 방문하면 내부에 암석이 솟아있는 것과 건축물 터가 대부분 넓은 기반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마 7:24–27). 사막이나 돌산이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은 땅 위에 쌓인 모래를 걷어내고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 작업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반석이시며, 바위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우리의 마음도 변덕스럽고 불완전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성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 – 교수간 공동프로젝트」 출범

학술연구형 6 개 팀 , 교재개발형 3 개 팀 , 학생 57 명 참여

학술지 게재 또는 교재 출간이 목표

▲ 최은희 학사 부총장이 일립관 B101 호에서 학생 – 교수간 공동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교수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 –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지난 3 일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갖고 출발했다 . 이 사업은 교수 1 인당 5 명에서 8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데 , 올 해는 학술연구형 (학술지 게재 목표) 과 교재개발형 (출간 목표) 을 운영하게 된다 . 「학생 –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에는 교수 9 명 , 학생 57 명을 합하여 66 명이 함께 한다 .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교수와 학생 35 명이 참석하였다 .

참여하는 총 9 개 팀 (성서 3 개 팀 , 영보 2, 컴소 1, 간호 3) 중 학술연구형은 6 개 팀 , 교재개발형은 3 개 팀으로 전공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 내년에는 총 20 개 팀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사업 종료 후 1 인당 50 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

이 사업은 2 주기 대학혁신사업의 교육혁신 영역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능동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우들이 학문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및 협동학습역량 성장을 기대한다 .

연말까지 모리아관에 승강기 설치

노원구청에 건축 , 설치 허가 신청

장애학우와 모든 학우들의 오랜 염원

▲ 모리아관 왼쪽 끝 부분 (사진) 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올해 말 안으로 설치된다 .

모리아관에 장애인용 13 인승 승강기가 올해 연말 설치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 . 사무관리팀은 지난 8 월 8 일 노원구청 관련부서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건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 모리아관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건물이다 .

승강기는 OTIS 사 제품이다 . 위치는 모리아관 자유열람실 쪽 , 복음관과 마주보고 있는 쪽이다 . 앞에 큰 단풍나무가 있다 . 이 위치는 복음관과 밀알관 , 일립관으로 이어지는 이동선과 곧바로 연계돼 접근성이 좋다 .

모리아관 외벽에 돌출형태로 구축되며 1 층은 외부와 내부 복도 방향에서 동시에 출입 (2 면 개폐) 이 가능하다 . 내부에 최신식 냉난방 가동 및 외부 투명 유리 형태로 전망과 쾌적한 탑승 환경 구조가 될 것이다 . 설치비는 약 2 억 ~2 억 5 천만 원으로 노원구청의 지원 (1 억) 과 우리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이뤄지게 된다 .

김형미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 그동안 장애 학생들이 모리아관 이용을 매우 힘들어 하였다 . 올해 안으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니 좋은 소식이다 . 교내에 장애학생 이동권이 더욱 보장돼 감사하다 " 며 고마움을 전했다 .

공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9 월 초순 : 노원구청 승인 및 승강기 설치 업체 선정 발주

▲ 10 월 중 : 승강로 건축업체 입찰 선정 및 승강로 구축 착공

▲ 11 월 중 : 승강기설치 완료 및 시험 운행

▲ 12 월 15 일 : 사용 가능

2 학기 성적장학대상자 발표

교내 외 장학 307 명 , 3 억 5 천여 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신송연 (사진 , 성서 2)

2022 학년도 2 학기 학부 성적장학대상자가 선정 되었다 . 전공교육부 장학위원회는 지난 27 일 장학위원회를 열고 2 학기 성적장학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장학대상자는 성적장학과 외부후원 장학 등 총 307 명이며 장학금액은 3 억 5 천여만 원이다 .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장학금 총액은 12 억 3 천여만 원에 달한다 .

영예의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은 신송연 (성서 2) 학우가 차지하였다 . ' 최우수성적장학 ' 은 강태헌 (성서 4) 학우 등 19 명 , ' 우수성적장학 ' 은 김다빈 (사복 4) 학우를 비롯해 19 명이 받았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의 신송연 학우는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결과 "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 그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터디와 매 강의마다 앞쪽에 앉아 집중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비결을 털어 놓았다 .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 신송연 (성서 2)

◈ 최우수성적장학

▲강태헌 (성서 4) ▲양희석 (성서 3) ▲조민영 (성서 2) ▲남궁이레 (성서 1)
▲천소영 (사복 4) ▲김채영 (사복 3) ▲박효림 (사복 2) ▲권하진 (사복 1)
▲안소희 (영보 4) ▲이민경 (영보 3) ▲길민지 (영보 2) ▲이가연 (영보 1)
▲최민혁 (컴소 4) ▲문상우 (컴소 3) ▲김예나 (컴소 2) ▲박현우 (컴소 1)
▲이윤아 (간호 4) ▲안은서 (간호 2) ▲김태린 (간호 1)

◈ 우수성적장학 (2 등)

▲이한나 (성서 4) ▲김유림 (성서 3) ▲이주찬 (성서 2) ▲최원영 (성서 1)
▲김다빈 (사복 4) ▲강민주 (사복 3) ▲김현서 (사복 2) ▲이하은 (사복 1)
▲이한솔 (영보 4) ▲지다은 (영보 3) ▲최해윤 (영보 2) ▲이유진 (영보 1)
▲구혜경 (컴소 4) ▲박혜원 (컴소 3) ▲박세윤 (컴소 2) ▲손소휘 (컴소 1)
▲한 솔 (간호 4) ▲윤정의 (간호 2) ▲강다현 (간호 1)

◈ 우수성적장학 (3 등)

▲백승인 (성서 4) ▲고주현 (성서 3) ▲권 샘 (성서 2) ▲최재영 (성서 1)
▲김경섭 (사복 4) ▲이현서 (사복 3) ▲권단비 (사복 2) ▲임서정 (사복 1)
▲김수연 (영보 4) ▲심채은 (영보 3) ▲최수아 (영보 2) ▲배서연 (영보 1)
▲조제민 (컴소 4) ▲이 삭 (컴소 3) ▲김지호 (컴소 2) ▲김성준 (컴소 1)
▲박윤미 (간호 4) ▲위진경 (간호 2) ▲이윤경 (간호 1)

※ 간호학과 3 학년은 실습 과정중이라 추후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

삼일교회 장학금 3 천만 원

▲ 송태근 목사 (오른쪽) 가 강규성 부총장 (왼쪽) 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에서 우리대학 대학원 원우를 위해 장학금 3 천만 원을 후원했다 . 송태근 목사는 " 맥추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전하게 됐다 . 원우들의 학업에 보탬 되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삼일교회는 지난 2019 년 8 월 우리대학 갈멜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비용 8 천만 원 전액을 헌금하기도 하였다 .

송태근 목사는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초빙교수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CBS 성서학당에 고정 출연 , 해박한 성서지식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

이날 후원금 전달 현장에는 강규성 부총장과 조혜경 대학원장 , 박태수 교학처장 , 안창선 성서학과 교수 , 박인혁 팀장이 동행하였다 .

우리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 평가서 「시정권고」

30 개 준거 중 29 개는 '충족 (充足)' 연구활동지원 1 개 준거만 '미흡 (未洽)'

우리대학은 한국대학평가원 (대교협) 의 「2019 년 (하반기)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 평가에서 교원의 연구활동지원 부문에 시정권고를 받았다 . 전임교원 1 인당 교내연구비의 지난 2 년간 (2020 년 ~2021 년) 평균은 466.6 천원으로 기준값 1,000 천원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시정되어 3 년 (2021~2023) 평균 1257,4 천원을 유지하고 있다 . 시정 결과를 2023 년 2 월 28 일에 보고만 하면 된다 . 「2019 년 (하반기) 인증대학」 평가에서 받았던 인증 자격은 아무런 변화 없이 2023 년 말까지 (5 년간) 유효하다 . 이번 인증자격모니터링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서면평가로 일단락되었지만 평가원이 자체평가보고서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실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 .

평가는 5 개 영역과 10 개 부문 , 30 개 평가준거로 진행되었다 . 평가위원들은 30 개 준거에서 29 개 준거를 충족 (Pass) 으로 판정하였으나 교수부문 ' 교원의 연구활동지원 ' 준거만 미흡 (Weakness) 으로 판정하였다 .

임지영 평가감사실장은 " 퇴직 교원의 연구비 관리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 . 그러나 이 준거도 이미 시정이 된 사항이라 문제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평가 최종 결과는 오는 8 월 31 일 통보된다 .

교직원들 , 일립 (一粒) 묘소 방문

70 주년 맞아 설립자의 비전과 삶을 추모

▲ 일동면 일립 묘소에서 예배를 마친 보직자와 직원들

설립자 제 24 주기 추모예배 (25 일) 에 앞서 교직원들이 지난 22 일 오전 , 포천 일동 설립자 묘소를 방문 고인을 기렸다 .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갖고 올해 개교 70 주년을 맞아 , 설립자의 비전과 삶을 회고 하였으며 복음전도자 양성의지를 다짐하였다 .

강규성 교목실장은 예배 말씀에서 설립자의 자전적 저서 ' 나의 증언 ' 을 인용하여 " 한국성서신학교의 중심이 되는 교과서는 신 · 구약 성서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 나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치가도 , 학자도 , 실업가도 이 학교에서 배출되기를 원한다 . 그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되기를 바란다 . 한국성서신학교 근본 사명은 주님께서 명하신대로 땅 끝까지 천국운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선 천국운동 복음화에 필요한 역군들을 훈련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 라고 대목을 그대로 읽어가며 학교 사명을 환기 시켰다 .

오윤선 교수가 "70 년 전 7 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우리대학이 설립정신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 올 수 있음에 영광을 올린다 .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 부르심에 신실한 종의 모습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 기도하였다 .

이후 강희정 학장 묘소에서 헌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 교목실 구광면 목사가 " 강희정 학장은 학문적 역량 제고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사는 전형을 보였다 . 그는 예수님 발자취와 설립자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밀알이었다 . 그를 쫓아 천국복음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기도하였다 . 참석자들은 이후 포천밀알훈련센터 예배당에서 합심을 다해 기도하며 일정을 마쳤다 .

현장에는 강우정 총장과 강규성 부총장 , 최은희 학사부총장 , 임지영 평가감사실장 , 김중완 행정본부장 ,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 조윤경 , 유정선 , 박성환 교수와 김현동 팀장 , 구광면 교목 , 이강동 차장 , 권오섭 , 김순남 씨가 참석했다 .

한국성서대학교 7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48,029,930원)

삼일교회	30,000,000원	김학진(동문)	2,000,000원	김정숙(외래교수)	279,330원
이노그리드(주)	10,000,000원	조항림(일반)	410,400원		
김은호(동문)	5,000,000원	카페 코스테스	340,2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11 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320,000원)

교직원	10구좌 이슬기	/	1구좌	곽한나

일시납 누계 (2022. 3.1~7.22) 225,031,780원 **약정자 누계 (2022. 3.1~7.22) 101구좌 12,120.000원**

밀알훈련
8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
복음전도자 자질 함양
정체성과 의지가 깃든 훈련

▲ 일립교육과가 밀알훈련에 사용될 기도용 산막텐트를 점검중이다.

밀알훈련이 8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 5 일간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일립교육과 (과장 박성환) 가 주관하며 1 차 22~24 일, 2 차 24~26 일까지 각 2 박 3 일간 이어진다. 지난 2 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축소 운영된 밀알훈련이 올해는 정상 실시된다.

밀알훈련은 해마다 여름방학 마지막 주간에 신입생, 편입생 대상의 신앙훈련이다. 이 훈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는 발자취를 따르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대학의 이념과 교육의 목표를 전하고 복음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교수와 선배들을 통해 삶으로 전하는 교육 현장이다. 노동을 통해 땀의 가치를 체험하고 복음전도자의 자질 함양을 위해 섬김, 헌신, 그리고 겸손을 보여 주고 상호 협력을 체득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립교육과는 이번 훈련에 약 200 명 (1, 2 차 각 100 명) 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훈련생들은 조별로 예배, 기도, 육체노동, 산행, 성경읽기와 교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여벌옷과 모자, 신발 (가급적 등산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휴대폰과 전자기기는 훈련 시작 전에 수거 되고 훈련 마치고 돌려받는다.

훈련과정을 돕는 자원봉사자 (총학 및 재학생 교수, 교직원) 60 명이 함께 한다. 일립교육과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무더위와 맞물리는 시기와 겹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 학기 부흥사경회
' 기도는 축복입니다 '
강사 장재기 목사
8 월 30 일부터 ~9 월 2 일까지

2 학기 부흥사경회가 오는 8 월 30(화) 부터 9 월 2 일 (금) 까지 로고스홀에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는 장재기 목사 (뿌리깊은 교회 협동목사) 다.

장재기 목사는 " 한국성서대학교가 올해를 ' 기도의 해 ' 로 정하고 노력 중임을 잘 알고 있다. 은혜로운 부흥사경회가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겠다 " 고 말했다.

장 목사는 ' 장재기 TV' 와 유튜브 채널 ' 따라하는 기도 ' 로 청년층과 교감을 넓혀가고 있는 인기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구독자가 15 만명이다. 장 목사는 침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담당목사와 젊은이 예배 총괄 디렉터를 거쳤다.

현재는 CBMC 성남 드림 지도목사로 사역중이다. 저서로는 「따라하는 기도 1, 2」 와 「요즘 고민이 뭐니」 가 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 월 30(화) – 따라하는 기도 (마 6:9~13)
▲ 8 월 31(수) – 필요한 기도 (마 7:9~11)
▲ 9 월 1(목) – 응답받는 기도 (막 11:24)
▲ 9 월 2(금) – 말씀 기도 (느 1:3~9)

신규 직원 임용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정은 연구원

이정은 연구원이 진로심리상담센터에 신규 임용되었다. 이 연구원은 서원대학교 서양학과, Purchas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뉴욕주립대학교) 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에서 미술심리치료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정은 연구원은 "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귀한 학우들을 섬기며 과업을 수행하게 돼 감사하다.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혹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진로 문제 등으로 고민과 불안에 놓일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최상의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섬기겠다 " 고 밝혔다.

코엑스 수시입시박람회
7 월 20 일 ~23 일

입학 상담 400 여명 , 비교적 저조

▲ 코엑스에서 진행된 수시입시박람회에서 지원자와 상담하는 모습

2023 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지원자 대상 박람회가 7 월 20 일부터 23 일까지 4 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입시박람회가 중단된 이후 3 년 만에 다시 열린 수시입시박람회이다. 각 대학 입시 관계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재확산 뉴스가 혼재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자들의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리대학교는 A 홀 왼편 하단 쪽 한국장학재단 홍보부스 전면에 자리를 마련하고 상담을 벌였다. 최육열 입학지속지원본부장과 신지수 입학팀장을 중심으로 매일 7 명 (연 31 명) 의 교직원이 나흘간 지원자와 학부모 등 400 여명과 입학지원 상담을 가졌다.

상담자들은 우리대학 입시유형과 특징 및 관련 정보를 사전 숙지하고 입학 가능여부를 확인해가는 분위기였다. 간호학과 문의가 많았지만 사복, 영보, 컴퓨터와 성서학과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부는 비기독교인의 입학이 가능한가 ? 신앙 미숙자로 채플 등 신앙교육 적응 여부, 장학금수여, 기숙사 입주 등의 문의도 뒤따랐다. 한 동문 선배 (성서학과) 는 3 년 후 성서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녀와 미리 상담하러 왔다고 말해, 교직원 모두를 흐뭇하게 해 주었다.

신지수 입학팀장은 올해 수시박람회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부스는 뒤쪽 끝 지점에 위치하여 염려가 많았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상담은 꾸준하였다며 기도로 성원해 준 성서공동체에 감사를 전했다.

2023 학년도 수시입시지원자 원서접수는 오는 9 월 13 일 (화)~17 일 (토) 까지 진행된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180 명 (성서 50 명, 사회복지 35, 영보 35, 컴소 30, 간호 30) 이다.

입학관련 문의 02-950-5403 신지수 입학관리팀 팀장

채플 찬양팀 MT 소감문

우리는 KBU 채플찬양팀

홍은찬 (성서 1)

▲ 수영장 놀이를 마친 찬양팀원들이 데크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지난 7 월 4 일 ~5 일 채플찬양팀은 포천밀알훈련센터로 MT 를 다녀왔다. 아직은 서먹한 선배님들과 친해질 기회, 그리고 새내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던 로망 바로 MT 였다.

우리는 산림 울창한 포천밀알훈련센터에 여장 풀자마자 곧바로 수영장으로 풍덩! 걱정과 더위, 근심까지 몽땅 씻어내며 웃고 떠들다보니 어느새 선배님들과도 친숙해진다. 김태진 찬양팀장님의 흥과 위트 가득한 레크리에이션 진행은 특별함을 줬고 자연에서 맛본 고기숯불구이도 가히 역대급 맛이었다.

우리의 주 임무인 찬양팀 회의를 가졌다. 발전적 내용들로 머릿속이 풍성했고 1 학년 의견까지 흔쾌히 반영해 준다. 선배님들 배려에 무한 감동. 속으로는 그래, 역시 채플찬양팀은 달라야지! 사연과 질문을 받아 익명으로 진행하는 ' 김태진의 스케치북 ' 은 유쾌한 재미와 함께 마음속 남은 칸막이까지 말끔히 제거. PPT 와 퀴즈, 찬양까지 담당한 ' 이준기의 오락 마당 ' 의 이 선배님 헌신도 인상적이었다. KBU 채플찬양팀 예배자의 멋진 카리스마를 봤다.

숲속의 밤은 이미 정점을 넘어선지 오래. 둥글게 앉아 서로를 바라만 봐도 우리는 흐뭇했다. 미처 못 나눈 사연을 다시 방출, 게임으로 흥을 돋우면서 세상사와 우리의 발전방향을 쉼 없이 풀어냈다. 웃음소리가 숲으로 퍼져나가고 단잠을 깬 산비둘기의 울음에 새벽도 서서히 기지개를 켰다.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생각은 더 뚜렷해졌다. 하룻밤 사이에 선배님들과 급속히 친밀해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KBU 채플찬양팀의 하나 됨도 봤다. 헌신과 배려, 사랑, 감동과 은혜를 안고 돌아온 나에겐 최고의 MT 였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며 곧 다가올 2 학기 찬양팀의 완벽한 호흡을 미리 그려보고 싶다.

▲ 관리사무소 옆에 자작나무를 이용해 손수 제작한 인디언 산막 앞에서 김순남 (왼쪽), 권오섭 부부가 다정한 모습으로 있다 .

포천밀알훈련센터는 한국성서대학 신앙훈련의 보금자리이다 . 개교 이래 70 여년 동안 설립자를 비롯한 교수들과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와 노동과 삶을 나누었다 .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그들 손으로 심겨졌고 땀과 눈물로 자란 기념비이다 .

매년 1 학년 학우들은 ' 밀알훈련 ' 이라는 이름으로 이 곳을 찾아 자신의 몫의 땀을 뿌리고 이 터전을 가꾼다 . 그들은 이 곳에서 섬김을 보고 , 사랑을 보고 , 남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 ' 밀알훈련 ' 을 했다고 다 성서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 밀알훈련 ' 을 거치지 않은 성서인은 없다 . 이 곳은 성서인의 자부심이다 .

우리 학우들의 훈련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또 쾌적한 쉼을 갖도록 준비하며 섬김을 실천중인 센터지킴이 **권오섭 직원과 아내 김순남 권사**를 만났다 . 정직한 실천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맥가이버 형 부부이다 .

"소명의 정직한 실천자"

포천밀알훈련센터 지킴이 **권오섭 , 김순남** 부부

▲ 밀알훈련센터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

시설물이 오래되다보니 내 · 외부 훼손과 작동 시스템에 고장이 잦다 . 이용객을 맞으려면 시간이 급한데 산촌에 있다 보니 A/S 등이 후순위로 밀린다 .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 해결을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 나는 손기술이 좀 있는 편이다 .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거나 중고 부속품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센터 내에 각종 기기들 – 보일러 , 냉난방기 , 예초기까지 수리하여 작동 될 때 뿌듯함을 느낀다 . 그리고 나의 기술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

▲ 손재주나 눈썰미가 타고난 맥가이버 인 것 같다

작동 시스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다 . 내가 모르는 분야라도 전문가가 수리할 때 유심히 보면 곧바로 소화가 가능하다 .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말썽 됐던 예초기도 기술자가 고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배워서 현재는 직접 수리하고 있다 . 웬만큼 지붕 물새는 것도 방수 기술자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직접 하였다 . 최근 김영수기념관 지붕 누수 수리도 그러한 케이스다 .

▲ 사람을 불러 고치면 더 쉬울 텐데 ?

물론 외부에 맡기면 수월하다 . 그러나 이곳에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에 보탬 되는 존재이길 원한다 . 어려운 학교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 그것은 바로 나를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정직한 실천이라고 본다 . 육체의 피곤함보다 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했다는 기쁨이 훨씬 크다 . 쓰임을 받는 자의 즐거움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

▲ 최근 어떤 작업을 하였는가 ?

얼마 전 김영수기념관 , 이삭하우스와 리브가 하우스 내부 형광등을 LED 로 교체 완료하였다 . LED 등 100 여개를 도매상에서 구매 후 우리가 기존 형광등은 다 떼어내고 꼬박 일주일간 작업했다 . 천장 올려보고 하는 일이라 목에는 무리였다 ^^. 외부에서 들어와 작업했다면 인건비만도 상당했을 것이다 . 게스트 하우스 커튼도 안감을 재활용해 만들어 달고 , 에어컨 설치며 야외용 식탁제작과 루핑작업 , 도배 등 등….

▲ 방문객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

이곳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다 . 갑자기 생각하려니 …. 중앙성서교회 송인숙 권사님이 떠오른다 . 꾸준히 오셔서 머물고 물도 떠가지만 여러 좋은 말씀으로 대화를 이끌어 줄 때 많은 걸 배우곤 한다 .

또 한 분은 3 년 전 늦가을 저녁 무렵이었다 . 중년 부부가 센터에 들어오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마음이 쓰였다 . 마침 아내와 잣죽을 끓이고 있었다 . 방도 살펴볼 겸 잣죽을 넉넉하게 담아 전해주며 물으니 , 오후에 먹은 음식이 체했다는 것이다 . 다음날 떠나면서 " 이렇게 맛있는 잣죽은 생전 처음이다 . 덕분에 편안히 잘 잤다 " 며 고마워했다 .

▲ 포천밀알훈련센터 뷰 포인트를 말한다면 ?

다 알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 뒤편 거대한 잣나무 숲은 단연 압도적이다 . 고요하고 청량하며 호젓함까지 겸비한 사색과 자아성찰하기 최적의 곳이다 . 예배당 쪽에 서서 가을철 낙엽송에 물든 주황 잎과 잣나무 푸르름이 노을과 교차되는 순간도 백미다 . 임도와 연결되는 1 번 능선 길 정점에 서면 시야에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상쾌한 전경은 막힌 가슴속을 후련히 날려줄 것이다 . 포진지 옆 자작나무숲 일대가 빚어내는 신비함도 범상치 않다 .

▲ 앞으로 비전은 ?

늦은 나이에 한국성서대학교 부름을 받아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성서의 식구들과 이 곳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 . 나와 아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정직한 실행자로서 맡겨진 일상을 즐겁게 헤쳐 갈 것이다 . 발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밀알훈련에 임하는 학우들에게

"왜 밀알훈련을 하는 거야?" 밀알훈련 계절이 다가오면 많은 신 · 편입생 학우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훈련대상 학우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밀알훈련에 임하는 학우들에게 총장이 전하고 싶은 첫마디는 이 훈련은 아름다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학우들은 누구나 다 견디어 낼 수 있고 누구나 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밀알훈련에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나눔이 있습니다. 노동이 있고, 산행도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난 70년 동안 선배들이 심어 놓은 나무가 있고, 맨손으로 닦아 놓은 길이 있고, 계단이 있고, 나무로 엮어 만든 다리도 있습니다. 선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밀알훈련 기간 동안 많은 친구를 만나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서 끈끈한 전우애도 쌓게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훈련이기에 우선 모든 염려와 불안한 마음은 버리기 바랍니다.

밀알훈련을 하는 이유는 한국성서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와 똑 같습니다. 우리대학의 4년 과정을 압축해 놓은 우리 대학 교육의 축소판입니다. 한국성서대학은 한반도를 복음화할 일꾼 즉 「복음전도자」를 기르는 대학입니다. 「복음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투철한 밀알정신이고 밀알훈련은 밀알정신을 함축하여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훈련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2박3일 동안 학우들은 핸드폰과 작별하고 혼자가 됩니다. 자기성찰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 밀알훈련을 통해 삶의 비전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 비전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성공할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나?'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학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밀알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결단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직원 컬럼
정은상 직원(대학원 교학팀)

나를 열정 있게 하는 사람들

나는 2015년 5월 입사 후 현재까지 7년간 대학원 교학팀에서 근무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원우님들이 나에게 준 영향은 항상 내 마음의 힘이 되곤 한다. 원우님들은 평균 4-50대 연령대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군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어른들이다. 대학원 근무 연차가 쌓여갈수록 드는 생각은 우리 원우님들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필수 학위 과정이 아니다. 자신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과정이지만 본인 미래와 꿈을 위해 2년, 길게는 4년을 학업에 열정을 쏟아 붓는다. 입시 상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10중 8, 9 "내가 나이가 많은데 공부 할 수 있을까요?"이다. 이런 걱정을 안고 입학 하지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물밀 듯 밀려온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계는 혼란스러웠다. 개강 전 급하게 수업과 행정 등을 전면 비대면으로 변경했다. 비대면에 적응 못하면 학업 유지가 힘든 상황. 우리 원우님들은 연령대가 높아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인트라넷에 로그인 하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나는 상당한 중도탈락 발생을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학교도 체계적 준비가 안 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우님들은 잘 이해 해 주었다. 그 결과 코로나 시기에도 대학원은 190명대의 재학생 수를 유지 할 수 있었다. 물론 교육해야 하는 나도 힘들었지만 그들의 열정에 부응, 부족하더라도 최대한의 소통과 배려 행정을 다짐했다.

나는 주위 선생님들에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우리 원우님들 조금 맘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원우님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원우님들에게 잘해 드려야 한다고...

이제는 원우님들이 그저 공부만 하고 나가는 대학원이 아닌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 하다가 졸업하는 행복한 학교가 됐다. 이게 바로 내 모교다.'라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모두를 정성껏 섬겨 갈 것이다.

교수 컬럼
조윤경 교수(영유아보육학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2022 년 1 학기는 불가피하게 비대면이던 지난 2 년과 달리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상이었던 대면 수업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횟수를 줄이기 위한 150 분 연강 수업은 그동안 진행된 대면의 50% 인 75 분 비대면 수업에 익숙한 탓인지 늘어난 시간 당 수업 내용 분배가 어려워 사전 리허설도 여러 번 했습니다. 수업만 일방적으로 하던 비대면 수업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 조는 학생을 깨우고 산만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 시도한 큰 소리 내기 등의 쌍방적 퍼포먼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투명이긴 하지만 칸막이 뒤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보며 강의자인 저를 주목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대면도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2 학기 수업계획서 작성에서 '75 분 분강 대면' 원칙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대면에 따른 수업 환경 변화 탓에 이전으로 진정한 회귀(回歸)가 가능할까? 걱정이 자꾸 튀어 나올 즈음에 '일터에서의 자세'라는 주제로 '시편 78 장 70~72 절'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그냥 양을 풀밭에 풀어 놓은 것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양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최선 다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 손의 능숙함으로 전문가적 기술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면 비대면과 상관없이, 학생들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에 적합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가르친 방향으로 이끄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진 교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방학 동안 이 진리를 되새기며 노력해서 조금은 다윗을 더 닮은 모습으로 2 학기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외래교수 컬럼
안정 교수 (신체활동과 건강)

움직임이 필요하다

손목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알람이 울린다.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었으니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다. 신호와 함께 허리의 통증이 느껴지지만 하던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만 같다.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고 작업을 이어간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나와 같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본업 때는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이후에는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이유는 얼마든지 많다. 지금 당장은 크게 아프지 않으니 비활동적인 신체활동 수준이 문제 될까 싶지만,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활동량 감소는 근육 감소와 체지방 증가를 통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합병증을 가져온다. 통증 생기면 몸도 무거워져 움직이는 것이 더욱 귀찮아지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인 점은 신체를 움직이는 영역은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움직임 수준을 늘려보도록 하자. 먼저 일상생활 속 활동부터 증가시키자. 하루에 앉아있는 총 시간을 줄이고, 30 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도록 하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책상에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하나 소개하니 지금 당장 함께 실시해 보자. ① 의자에 허리를 바르게 펴고, ②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고 앉는다. ③ 양 손으로 의자 하단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는다. ④ 허벅지와 골반의 높이를 평행하게 고정한 한다. ⑤복근의 힘을 가지고 한 쪽 다리를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내려 주는 것을 20 회 반복한다. 반대쪽 다리도 20 회 반복하여 총 3 세트 실시한다. 강도는 체력에 따라 조절한다.

최정귀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내 안의 문장들

길게 줄을 섰다가 명동칼국수를 뱃속에 넣고, 친구와 성모마리아가 있는 명동성당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얘기 끝에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 영화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학교 학과 후배가 '임순례' 영화감독이다. 리틀 포레스트를 제작하였다며 감상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 영화의 한 줄 대사가 칼국수를 밀어내고 제 위장의 양식이 됐습니다. 여주인공 김태리의 나지막한 독백으로 밀려온 대사는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힘이 세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들었고 지금도 제 안에서 그 힘을 자랑하고 있는 말들을 골라 봤습니다.

1.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엄마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백열전구가 켜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시니까, 제 키보다 높은 백열전구 소켓 스위치를 끄려고 저는 의자 위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전기세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힘이 지금도 작동돼 전기스위치를 끄고 다니는 저를 봅니다. 미국 교회와 지금 교회서도 불은 일단 꺼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니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빠 오신다. 신발 정리해라.

아버지는 유난히 신발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믿기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 도둑이 들어왔다가 현관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된 걸 보고 이 집은 안 되겠다며 무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모친의 말인지, 부친의 이야기인지 근원은 모르지만 출장 다녀오시는 날이면 현관 신발들이 강제로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곤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는 날은 미닫이 문 아래, 길지만 넓지 않은 마루 하단 여기저기에 던져진 신발들이 질서 있게 놓이게 됩니다.

3. 엄마 힘들다. 옷은 두 번씩 입어라.

마당 대야에 벗어 놓은 옷들이 가득 담겨 있으면 엄마가 소리칩니다. "엄마 힘들다. 옷 한 번씩 다시 입어라" 우리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투덜대며 벗어 놓은 옷을 듭니다. 옷이 무거울수록 입는 기간이 길어지고 세탁 횟수도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물빨래 하는 엄마의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지금도 제 안에서 힘이 셉니다. 그러나 더 센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새겨진 이후에는 많은 주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 안의 본성을 이기게 할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97

윤삼현

지구본 택배

지구본을 꺼내다가
상자에 박힌 글귀를 꼼꼼히 읽었다

–조심히 다루어 주세요
74억 명이 이 안에 숨 쉬고 있으니까요

–직사광선, 화기 등에 가까이 놓지 마세요
극지방이 녹아 해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살살 놓아주세요
자칫 지진 소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밀한 공법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구별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하니까요

–한국 일본 사이 바다를 '동해'로 표기하였습니다
지구본은 진실이 생명이니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47432

나를 생각하다 우주를 생각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행성과 위성, 그 거대한 이름을 읊조리다 티끌보다 작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지구본을 꺼내 정성을 다해 지구를 닦는다. 맑고 푸른 바다와 초록이 깃든 땅, 빙하로 덮인 극지방을 골고루 닦아내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본다. 74억 명이 숨 쉬고 있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조심히 다루기, 직사광선과 화기에 가까이 두지 않기, 바닥에 살살 놓기, 정밀한 공법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진실을 생명처럼 지키기...

세상이 이렇게도 넓은데 발밑만 바라보며 연연했던 삶이 부끄럽다. 지구본을 한 아름 품에 안으며 내가 선 땅과 내가 설 땅을 생각한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27호

내 마음에 들어온 산

최정권 (불암산 / 2022.07)

도서관 창가에 앉아서 책 보기가 지겨워지면
고개 들고 바라보던 508 미터 불암산이
어느 날
제 가슴을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

믿음 없는 이방인 땅에서 자란 돌짝 밭에
힘들게 뿌리 내린 그 말씀처럼
저 산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

바라다 볼 때마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마음은 큰데 손끝 재능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저 산은 더 강력한 걸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장대 끝의 못으로
뚫어 놓은 얼음 구멍 사이로 보이던 강이 답답했는데
회색 아파트 건물 사이로 보이는 산이 싫어서
산이 보이는 지점까지 걸어갔습니다 .

그 지점에서 서서
산과 하늘이 그어놓은 선을 보고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을 봤습니다 .
산은 말이 없고 산의 언어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
쌓이는 마당의 눈처럼 그 산의 언어도 그렇게 쌓여 갔습니다 .
제 가슴에 ….

대학
어린이집

건강한 교사 , 행복한 교사

▲ 보육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대학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 건강한 교사 , 행복한 교사 ' 를 목적으로 심신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과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 7 월 둘째 주는 소그룹으로 다양한 도서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달 진행된 사람 성격분류유형 이론인 에니어그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진 교사와 조를 나누어 진행했다 . 성격 유형 소개 후 자신이 감상한 도서를 나누었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긍정적 요소를 통해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됐다 .

교사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동료를 좀 더 이해하고 돈독한 관계를 증진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소망반 고은아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여름김치 나눔 행사

▲ 김치 나눔을 위해 마련한 김치 박스 앞에 함께 한 관계자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7 월 5 일 (화)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 , 주민의 후원금 및 물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420 세대에 포기김치 5kg 을 지원할 수 있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과거보다 이웃과 관계는 많이 단절되었지만 이번 김치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여름김치 지원이 식생활에 어려움 겪는 주민에게 도움 되었기를 바란다 . **[문유나 사회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알사탕 뮤지컬 관람

▲ 뮤지컬 ' 알사탕 ' 관람 후 배경화면 앞에 자리한 유아들

지난 7 월 꿈빛어린이집에서는 유아들과 ' 알사탕 '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 평소 즐겨보던 ' 알사탕 '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뮤지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였다 . 유아들은 뮤지컬에서 그림책에 나온 등장인물을 접하고 박수와 함께 노래까지 힘차게 부르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 스토리에서 다른 존재가 보여주는 속마음을 듣고 진심을 말할 용기를 얻는다는 내용의 ' 알사탕 ' 관람 후 ,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 관람을 마치고 등장인물 도장 찍기 , 알사탕 색칠하기 등 그림책 만들기로 아쉬움을 달랬다 .

이번 뮤지컬에 쏟아진 유아들의 관심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그램책 발굴과 관람도 가능한 작품을 적극 검토해 갈 예정이다 . **[나리반 이가연 교사]**

성서
대학교회

여름 수련회

▲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청년부 수련회

성서대학교회는 7 월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15 일 ~16 일 (토) 청년부 수련회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 교제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

이어서 17 일 , 24 일에 미취학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 7 월 31 일 , 8 월 7 일 , 14 일 3 주간은 매 주일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한다 . 8 월 2 일 ~4 일 (목) 까지는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며 태국 아웃리치 (8 월 7 일 ~ 13 일) 와 8 월 28 일 전교인 수련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

성서대학교회는 각 기관 , 전교인 참여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 속한 자들의 풍성함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의 결실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롯데아쿠아리움 방문

▲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중인 유아들

지난 7 월 15 일 롯데 아쿠아리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무더운 여름철 맞아 물과 관련된 여러 해양생물을 직접 느끼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이다.

아쿠아리움에는 극지방존과 벨루가 존, 산호초 가든 등에서 살아 숨 쉬는 해양생물의 움직임과 생김새 및 다양한 해양 생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바다를 닮은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가오리, 상어, 펭귄 등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해양생물의 멋진 유영을 생생히 접하는 즐거움도 감동을 줬다.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래 벨루가가 인사해 줬어요. 진짜 바다 친구를 보니 좋았다며 감동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맑은반 용혜수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 그림자 극 활동가와 함께 그림자놀이를 즐기는 유아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자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그림자놀이'는 그림자극 활동가가 어린이집에서 공연을 펼친다. 유아반은 '잠깐', 영아반에게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보여준다. 관람을 마치면 색깔그림자 만들기, 내 맘대로 커지는 그림자, 그림자 잡기 등 스토리와 그림자가 상상과 활동을 체험해 보는 시간이 이어진다. 극을 관람한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들이 "그림자극을 보며 스토리와 그림자놀이에 높은 호기심을 보였다. 관련 내용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기회여서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반겼다. 또한 공연장 찾는 번거로움 없이 쾌적하게 즐겨서 더 좋았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여러 편의성을 고려해 예정된 횟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상계 5 동 어린이집

우리들의 바자회

▲ 5 세반 유아들이 바자회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지난 7 일 상계 5 동어린이집은 만 5 세반이 주도한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만 5 세반 유아들은 바자회 포스터와 초대장을 만들고 전체 학부모 및 친척과 이웃 분들이 참여하도록 관련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기증받은 물품 (의류, 악세사리, 장난감, 책, 생필품 등) 과 만 5 세 유아들이 만든 초콜릿과 팔찌, 그리고 뽑기와 슬러시도 판매되었다. 어린이집 내 친구들까지 물건을 사러 왔고 많은 학부모가 물품을 구매하였다. 유아들은 기증품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현장 경험에 뿌듯함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바자회' 의미를 깨닫게 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며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수익금은 불우이웃에 사용하도록 기부할 예정이다.

[늘푸른반 정예정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 유아들이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7 월 1 일 '찾아가는 그림자놀이'를 진행하였다. 이번 놀이는 사단법인 색동어머니회 소속 활동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기돼지 삼형제', '잠깐'을 주제로 그림자극을 공연해 준다.

공연 시작되기 전 손유희와 목소리 놀이로 그림자놀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일깨운다. 공연 후에는 색깔 그림자놀이, 크고 작은 그림자 만들기, 친구들과 함께 그림자극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영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그림자를 비춰보거나 신체부위 활용한 그림자 만들어보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여 나오는 빛과 함께 창조되는 색다른 그림자에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그림자 부채를 꾸미고 교실에서도 놀이가 확장되는 즐거움을 만끽해 좋았다.

[즐거운반 천은주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삼일교회(용산)(송태근 목사)	30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911만원(운영)
(주)이노그리드	1000만원(운영,컴퓨터소프트웨어학발전)
강우정.강진(총장)	534만원(운영)
김은호(성서학)	515만원(운영)
김학진(동문)	200만원(운영)
반종원(이사장)	10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재한 김한나 박경옥 배은휘 송원복 심두한 이진경 신에스더 정영교 최승주 탁윤석
2구좌 김복녀 박주은 박주은 이상복 임수경 최선옥
3구좌 김석환
5구좌 김진경
16.6구좌 김학진

재학생 및 가족
2구좌 박혜숙 이영림
3구좌 김재임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구자람 조철남
3구좌 방진희
5구좌 김원빈 이광삼
10구좌 곽규상 김주아 원영희 정해덕
11구좌 최지은

부설기관
4구좌 박미선
10구좌 장수진

밀알교회
1구좌 서효정

수원교회
1구좌 홍성호

이례교회
1구좌 이채은

일 반
1구좌 이유진
2구좌 조혜령
3구좌 김종환
5구좌 이천화

단체 및 기관
2구좌 동신자원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 융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송원복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찬미 오찬양 오채엽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차현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고성주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미향 김민지 김보현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인화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왕용분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우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석환 김윤정 남정부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연정 안정민 유아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성은 이안나

기부자 명단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혜란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준오 김 진
김진경 김혜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정예나 천유림 최송희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50만원 김동우
100만원 이례장학
200만원 김학진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권순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주 김은혜
김혜미 류한나 박대종 박재숙
반우형 선동하 선유정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양은성
엄미자 유주연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성령 이혜진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송동식
여경숙 이마리 이영림 이진아
전옥순 정영숙 천광호 함은애
홍은선
3만원 김은선 김재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5만원 김명자 김종호 박인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정미영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종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심평강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종우 이희주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진달래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윤정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김진순
문지예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박성범 박인혁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윤혜진 이상일 이소연 추연진
4만원 김덕원
5만원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장정순
6만원 권순범 이성아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슬기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17만원 김덕현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28만원 김정숙(아시아행복연구원)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반종원
515만원 김은호
534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이다솜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2만원 이가연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지연
차도영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전안나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안미희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장은경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2천7백원 박용숙
9천원 이 천 정현숙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사천 김상은 김성진
김성철 김유미 김은미 김정숙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진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주형
방미경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손원자 안봉숙 오종철 윤재필
이관영 이길우 이대우 이봉호
이소정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임성일 장근문 장홍림
정갑순 조병하 조정선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2만7천원 김동수 유은주
3만6천원 강규성 강유진 김민자 김인자
김춘환 박 선 박선하 박성환
박태수 새싹박 송인희 용정자
유정선 유중엽 윤도진 이경신
이승우 이윤봉 장진희 정나영
조영희 황시온
4만5천원 양천식 유형창
5만4천원 김문응 김영오 김일선 김현석
민윤옥 박천순 이숙영 진명순
최선희
7만2천원 황서린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용희 김동선
김원태 박세건 새싹최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최순남 최지웅
한진호
18만원 김웅기 최대만
2000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동두천성서섬김교회
/벧엘성서동우회
/중앙성서교회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현희철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0만원 김윤규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2만원 진효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류계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계절상점
/위샐러듀
1만3천원 무 명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보경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행복한교회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서미혜 정동환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34만원 카페코스테스
41만원 조항민
1000만원 (주)이노그리드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이음기업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가학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천성교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례E&C이례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두암산업(주)/상록교회
/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수봉산교회/철원제일교회
/평안교회(송파)
12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청평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000만원 삼일교회(용산)

소계(20220621~20220720)
103,834,160
누계(20220301~20220720)
485,863,750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당신의 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평생교육원 안내사항

학 점 은 행 제

- **대학의장 학위 취득**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취득)
- 신학전공 / 사회복지학전공 / 아동학전공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 이수자)
- **교육부장관 학위 취득**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취득)
- 신학전공 / 사회복지학전공 / 아동학전공 /
  상담학전공 / 심리학전공 등

자격증 과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 보육실습 과목 이수**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일반교양 과정

- 비학위과정 (목조주택, 설교세미나, 콘서바토리 등)
- 보육교직원 집합 / 온라인 보수교육
- 노원평생시민대학

문의 : 02 - 950 - 5535 / lle.bible.ac.kr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